

## 20. 기계기구제조업 세척작업자에게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세척공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권○○은 1996년 8월 반도체 장비 외장 커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계, 기계가공, 세척 및 관리 업무 등을 하였는데, 2004년 7월경부터 엉덩이 통증, 발바닥 무감각, 소변 장애 및 보행 중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양측 부신의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반도체 장비 외장 커버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업공정은 프로그램 설계 ⇒ 기계가공(NC 프레스) ⇒ 절곡(절곡기) ⇒ 용접 ⇒ 사상 ⇒ 크린작업 ⇒ 포장 및 납품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는 1996년 8월 1일 입사 때부터 진단일인 2005년 4월까지 약 9년 동안 사무직을 포함하여 전 공정에서 작업하였다. 작업내용은 입사초기에는 설계업무를 하며 현장에서 호출이 있으면 현장으로 가서 세척작업 등을 하였다. 세척작업은 주당 4일 정도하였고 1일 약 1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세척작업 이외에 절곡과 용접보조 작업도 하였다. 호흡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면장갑만 착용하였는데 젖는 경우가 많아 착용하지 않았다. 세척작업은 세척조에 제품을 담가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제인 신너를 용기(지름 20 cm 정도)에 따라 놓고 형질에 적셔서 제품을 닦는 방법이다. 신너는 월 20리터 용기 3통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성분분석한 결과 벤젠이 0.74 area%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8년 7월부터 동과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자동차기기(벨브, 피스톤, 실린더 등)를 제조하는 소규모(사장포함 10명 정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가공과 세척작업을 주로 하였다. 특별한 병력은 없었고, 감염, 특히 C형간염 등의 병력은 없었다. 모친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2명의 여자 형제는 건강하였다. 음주는 못하나 담배는 약 18년간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하였다고 한다.

**4. 결론:** 근로자 권○○의 비호지킨 림프종은

- ① 1988년 7월부터 방위근무를 한 2년을 제외하고 약 14년간 신너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나,
-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척작업은 일일 평균 약 30분-2시간 정도밖에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에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0.74%(부피비)로 불순물로 미량 포함된 정도이어서,
- ③ 현재의 작업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작업 중 사용한 세척제에 포함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발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므로,

권○○의 비호지킨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